

##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

손 정 남\*·차 보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하여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고,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어있다는 문화적 신념아래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 내에서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아내구타를 정당화해 왔고 피해대자에 대한 고려는 물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도 소홀히 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Bun, Won과 Chung(1999)이 전국 20대에서 50대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여성응답자 중 35.6%가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2004년 여성가족부에서 6,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배우자 폭력 발생률이 44.6%로, 남성의 아내폭력이 37.3%, 여성의 남편폭력이 32.6%, 상호폭력이 25.3%

로, 상호폭력을 제외한 순수한 여성에 의한 남편폭력은 7% 내외로 나타났다(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가정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되므로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그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게 되어 Walker(1979)(Kemp, 2001에 인용됨)는 이들 피해여성의 자존감이 낮고, 공포나 분노감을 부인하면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으며, 심리, 신체적 증상호소와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갖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여성 증후군이라 하였다. 다양한 건강문제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래 전쟁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검토되었지만 최근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도 보고되고 있고(Bennice, Resick, Mechanic, & Astin, 2003; Mertin & Mohr, 2001; Pico-Alfonso, 2005), 불안은 국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신적 건강문제 중 대상자의 85.3%가 호소하였고(Lee, Lee, Kim, & Choi, 2001), 대만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도 10가지의 정신, 심리적 증상 중 불안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Hou, Wang, & Chung, 2005).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Romito, Molzan, & De Marchi, 2005) 및 가정폭력 경험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계연구(Kemp et al.,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손정남 E-mail: jnsohn@hanseo.ac.kr)  
투고일 2006년 2월 9일 심사회의일 2006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0일

1995; Romito, Molzan, & De marchi, 2005; Pico-Alfonso, 2005)가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Bun et al., 1999;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특히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남편의 폭력이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Hong & Park, 2001)에 대한 연구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 무기력이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담소나 컴퓨터를 이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폭력 경험여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경미한 폭력을 경험하거나, 만성적인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폭력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어 심리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들 건강문제가 피해여성들의 어떤 요인에 의해 심각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인 주요 문제인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폭력 피해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여성의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불안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 2)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 3. 이론적 기틀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고(Bennice, Resick, Mechanic, & Astin, 2003; Mertin &

Mohr, 2001; Pico-Alfonso, 2005; Hou, Wang, & Chung, 2005; Lee et al., 2001),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78%(Hong & Park, 2001) 내지 80~84%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될 정도로 불안 증상이 심각하다(Kemp & Green, 199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지각 및 대처능력의 부족 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Kemp, Green, Hovanitz, & Rawlings, 1995), 사회적 지지가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불안 감소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Mertin & Mohr, 2001). 또한 회복기에 있는 가정폭력 경험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생활사건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Astin, Lawrence, & Foy, 1993). Kemp와 Green(1995)은 179명의 구타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PTSD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성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 낮게 나타났다.

Foa, Steketee와 Rothbaum(1989)은 분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분노가 활성화되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해서 심리적으로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 첫 번째가 외상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생존자가 가지고 있던 세계와 자아에 대한 도식과 기억이며 외상 사건 후의 겪게 된 경험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수정하는 것처럼 세계와 자아에 대한 도식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a & Rothbaum, 1998). 따라서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성격적 자기비난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Andrew & Brewin, 1990). 이러한 견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달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근거로 하여 가정 폭력 경험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분노, 자아존중감 등을 선정하였다.

## 4. 용어 정의

### 1) 가정폭력 경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0),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아내가 경험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조사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및 대전의 7개 특별시나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및 제주도의 6개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출방법은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기혼 여성 수 1,376만 명에서 15,000:1의 비율로 각 시도별 대상자 수를 결정한 후 연구의 접근성, 수용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상회 모임이나 지역사회 친목모임을 중심으로 임의 표출하였다. 그 결과 976명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 보조자 10명이 지역 접근 가능성에 따라 지역을 나누어 방문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 840부가 회수되었다. 그중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40부를 제외한 80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800명 중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총 555명으로 나타나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 555명은 서울 83명(15%), 부산 41명(7.4%), 대구 13명(2.3%), 인천 32명(5.8%), 광주 10명(1.8%), 대전 24명(4.3%), 울산 18명(3.2%), 경기도 116명(20.9%), 강원도 22명(4.0%), 충북 16명(2.9%), 충남 44명(7.9%), 전북 25명(4.5%), 전남 30명(5.4%), 경남 27명(4.9%), 제주 9명(1.6%)으로 분포되어 있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 도구, 상태-특성분노 표현 측정 도구, 갈등 대처 유형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도구, 자아존중감 도구, 불안 측정 도

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 도구 등이다.

#### 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Kamarch와 Mermelstein (1983)의 도구를 Lee 등(200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항목의 5점 척도로 원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sim.85$ 였고 재검사 신뢰도는 .85였으며, 번안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다.

#### 2) 상태 - 특성 분노 표현

분노경험과 분노 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분노 표현 측정도구(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1983)의 한국어판(Chon, 1996)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분노 10문항, 특성 분노 10문항, 분노 억제 8문항, 분노 표출 8문항, 분노 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분노, 상태분노 및 각 분노 표현방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상태분노 Cronbach's  $\alpha=.95$ , 특성 분노 Cronbach's  $\alpha=.84$ , 분노 억제 Cronbach's  $\alpha=.75$ , 분노표출 Cronbach's  $\alpha=.74$ , 분노 통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태 분노 Cronbach's  $\alpha=.93$ , 특성 분노 Cronbach's  $\alpha=.89$ , 분노 억제 Cronbach's  $\alpha=.83$ , 분노 표출 Cronbach's  $\alpha=.82$ , 분노 통제 Cronbach's  $\alpha=.85$ 였다.

#### 3) 갈등 대처 유형

Strauss 등(1996)이 제작한 갈등대처 유형 측정 도구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Son(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폭력 12문항, 심리적 폭력 8문항, 협상 6문항, 성적 폭력 7문항, 상해 6문항 등 총 39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 1년간 그 영역의 경험 빈도가 잦은 것을 의미한다. 번안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폭력 Cronbach's  $\alpha=.94$ , 심리적 폭력 Cronbach's  $\alpha=.93$ , 성적 폭력 Cronbach's  $\alpha=.76$ , 협상 Cronbach's  $\alpha=.75$ , 상해 Cronbach's  $\alpha=.72$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신체적 폭력 Cronbach's  $\alpha=.94$ , 심리적 폭력 Cronbach's  $\alpha=.90$ , 성적 폭력 Cronbach's  $\alpha=.87$ , 협상 Cronbach's  $\alpha$

=.86, 상해 Cronbach's  $\alpha$ =.89로 나타났다.

4) 상태 불안

상태 불안은 Spielberger, Gorsuch와 Luschene (1970)의 STAI를 Kim(1978)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ndt와 Weinert(1985)에 의해 개발된 인적자원 측정도구(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II: PRQ II)를 Kim(1998)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번안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다.

6) 자아존중감 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한국어판(Chun, 1974)으로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5이었고,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도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도구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에서 개발되어(Farly & Barkan, 1998), DSM-IV의 진단기준 17개 항목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원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고, Cronbach's  $\alpha$ =.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2단계로 이루어졌다. 2004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부가 회수되어 예비조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

해 문항수정과 신뢰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 연구자로부터 자료 수집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10명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보조자가 각 지역과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보조자들은 자료 수집에 앞서 먼저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한 후 추후에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설문지마다 봉투를 배부하여 작성 후 스스로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97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4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충분한 자료 40개를 제외한 800부 설문지가 자료수집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자료 555부만 분석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 3)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21세~69세의 범위로 평균 41.62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87명(51.8%), 대졸 149명(26.9%)의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03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무교 159명(28.8%), 불교 129명(23.4%), 가톨릭 55명(10.0%), 기타의 순이었다. 생활수준은 '중'이 425명(76.6%)으로 가장 많았고, '하' 112명(20.2%), '상' 16명(2.9%)의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현재 기혼인 경우가 542명(98.2%), 이혼 및 별거 6명(1.1%), 동거 2명(0.4%)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

은 1개월~50년으로 평균 16년 7개월이었다. 직업의 종류는 무직인 경우가 196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90명(16.6%), 전문직 81명(15%), 사무직 66명(12.2%)의 순이었다.

## 2.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과 불안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내었다<Table 1>.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은 지각된 스트레스, 기질분노, 상태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등으로 나타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기질분노가 높을수록, 상태분노가 높을수록, 분노 억제나 분노표출을 할수록,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가 많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분노통제, 협상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분노 통제나 협상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협상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은 지각된 스트레스, 기질분노, 상태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 등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기질분노가 높을수록, 상태분노가 높을수록, 분노 억제나 분노표출을 할수록,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가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분노 통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분노통제를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 요인

가정폭력 경험자들의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 기질분노, 상태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통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협상, 상해,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방법(stepwise selection)으로 변수를 선택하였고, 변수선택시의 유의수준은 .05, 변수 제거시의 유의 수준은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의 불안 예측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상태분노, 사회적 지지, 기질분노, 협상, 심리적 폭력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자아존중감이 1

<Table 1>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Y1	Y2
X 2	.36***	1													
X 3	.39***	.48***	1												
X 4	.33***	.50***	.50***	1											
X 5	.20***	.59***	.48***	.61***	1										
X 6	-.18***	-.24***	-.12**	-.08	-.26***	1									
X 7	.12**	.28***	.47***	.34***	.44***	-.04	1								
X 8	.23***	.32***	.45***	.37***	.45***	.00	.77***	1							
X 9	.13**	.26***	-.45***	.36***	.33***	-.04	.75***	.60***	1						
X10	.01	.10***	-.02	.12**	.10*	.16***	-.03	-.06	.05	1					
X11	.10*	.26***	.44***	.30***	.37***	-.01	.91***	.71***	.75***	-.03	1				
X12	-.20**	-.18***	-.28***	-.26***	-.26***	.25***	-.39***	-.39***	-.33***	.34***	-.37***	1			
X13	-.30***	-.25***	-.37***	-.32***	-.34***	.23***	-.34***	-.33***	-.32***	.21***	-.34***	.61***	1		
Y 1	.54***	.40***	.49***	.38***	.32***	-.26***	.32***	.39***	.32***	-.19***	.32***	-.50***	-.57***	1	
Y 2	.41***	.45***	.50***	.46***	.39***	-.09*	.36***	.42***	.35***	-.07	.36***	-.37***	-.45***	.58***	1
X1: stress		X2: trait anger		X3: state anger		X4: anger in		X5: anger out							
X6: anger control		X7: physical violence		X8: Psychological violence		X9: sexual violence		X10: negotiation							
X11: injury		X12: social support		X13: self esteem		Y1: Anxiety		Y2: PTSD							
* p<.05		**p<.01		***p<.001											

단위 증가 시 불안은 .264 감소하며, 지각된 스트레스 경험이 1단위 증가 시 불안은 .314 증가하고, 상태 분노가 1단위 증가 시 불안이 .146 증가하며, 사회적 지지가 1단위 증가 시 불안이 .159 감소한다. 또한 기질분노가 1단위 증가 시 불안이 .103 증가하며, 협상이 1단위 증가 시 불안이 .083 감소하고, 심리적 폭력이 1단위 증가 시 불안이 .072 증가한다. 이들 7가지의 유의한 변수가 불안을 5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상태분노, 기질분노, 심리적 폭력, 지각된 스트레스, 분노 억제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상태분노가 1단위 증가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72 증가하며, 기질분노가 1단위 증가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52 증가한다. 분노억제가 1단위 증가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32 증가하며, 심리적 폭력이 1단위 증가 시 .151 증가하며, 지각된 스트레스가 1단위 증가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139 증가한다.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2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가지 요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노표출, 분노 통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협상, 상해, 사회적 지지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IV. 논 의

가정폭력은 남편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중요한 지지체계를 잃게 되고 지속적으로 폭력의 공포, 상해, 심리적 손상이 가중되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Hou, Wang과 Chung(2005)의 대만의 가정폭력 경험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10가지의 심리, 신체적 증상 중 불안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강박, 우울, 신체화 증상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이 불안이 가정폭력의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불안의 예측 요인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적인 가정폭력 경험은 자아 강도를 약화시키며,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가져와 자신의 내면세계의 불확실성과 무력감으로 인해 기존의 체계와 자신에 대해 반항과 갈등을 지니게 되므로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emp(2001)도 구타당하는 여성은 자존감의 손상과 무기력, 부정적 자아개념 등을 지니며 이런 정신의 노예화 과정이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Kim(2002)는 가정폭력 희생자의 희생화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면서 제 1기는 분노의 시기이고, 제 2기는 공포의 시기로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시기이다. 제 3기는 무기력의 시기로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더불어 아주 무기

<Table 2> Predictors for anxiety and PTSD in family violence experienced

	Estimate	Estandardized estimate(β)	t	p	F(p)	R <sup>2</su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Anxiety					98.006(.00)	.558		
intercept	2.622		17.562	.000				
self esteem	-.289	-.264	-6.974	.000			.565	1.769
stress	.275	.314	9.755	.000			.787	1.271
state anger	.148	.146	4.039	.000			.618	1.618
social support	-.143	-.159	-4.075	.000			.536	1.865
trait anger	9.7E-02	.103	3.062	.000			.715	1.398
negotiation	-4.9E-02	-.083	-2.686	.000			.858	1.165
psychological violence	6.01E-02	.072	2.129	.000			.714	1.401
PTSD					69.283(.00)	.432		
intercept	1.233		5.227	.000				
state anger	.251	.172	4.067	.000			.584	1.713
self esteem	-.336	-.211	-5.838	.000			.796	1.257
trait anger	.209	.152	3.840	.000			.660	1.515
psychological violence	.183	.151	4.031	.000			.744	1.345
stress	.177	.139	3.802	.000			.781	1.281
anger in	.193	.132	3.265	.001			.632	1.583

력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요인 중에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 억제 등과 같은 분노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폭행의 생존자 집단의 분노가 통제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분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이라는 결과(Riggs, Dancu, Gershuny, Greenberg, & Foa, 1992)를 지지한다. 특히 분노 억제가 예측요인으로 나온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둠으로써 자신은 괴롭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만성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폭력의 유형 중 심리적 폭력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폭력 중 심리적 폭력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Pico-Alfonso, 2005), 신체적 학대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심리적 학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으나 신체적 학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Street & Arias, 2001) 및 심리적 학대는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가 여성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 공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Sackett & Saunders, 1999)를 지지한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생활사건과 발달적 스트레스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Astin, Lawrence, & Foy, 1993)와 부정적 생활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연구 결과(Kemp et al., 1995)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 외에도 기타 생활상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어 해소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예측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Jeon(200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학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같이 접근적인 대처전략이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만성적인 학대)에서는 회피적인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과(Compaz, Banez, Malcarne, & Worsham, 1991)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여성들은 주변사람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물론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 등을 함께 받기 때문에 양가감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폭력유형 중 심리적 폭력이 불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 요인이고,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폭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시 심리적 폭력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들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중재,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건강교육, 여성 스스로 자신을 문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여성의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6개도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555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고 본 조사는 연구자로부터 자료 수집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10명의 연구 보조자에 의해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Cohen등(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도구, 한국어판 STAXI(Chon, 1996), Straus 등(1996)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Kim (1978)이 번안한 불안 도구(STAI), Brandt와 Weinert (1985)의 PRQII(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II),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 외상 후 스트레스 국립센터에서 개발한 PTSD 측정 도구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 상태분노, 심리적 폭력, 분노 억제 등은 불안 유발 예측요인이며,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협상 등은 불안 감소요인으로 이들 변수가 불안을 5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분노, 기질분노, 심리적 폭력, 지각된 스트레스, 분노 억제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예측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소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폭력유형 중 심리적 폭력이 불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 요인이므로 대상자들의 심리적 폭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중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건강교육,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여성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Astin, M. C., Lawrence, K. J., & Foy, D. W.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battered women: risk and resiliency factors. *Violence Vict*, 8(1), 17-28.
- Bennice, J. A., Resick, P. A., Mechanic, M., & Astin, M. (2003). The relative effects of intimate partner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atology. *Violence Vict*, 18(1), 87-94.
- Bun, W. S., Won, Y. A., & Chung, S. K. (1999). *A study on gender awareness and violence for women*.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n, K. G. (1996).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Korean J Rehabil Psychol*, 3(1), 53-69.
- Chun, B. J. (1974). Self - 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Study*, 10, 109 - 129.
- Compas, B. E., Banez, G. A., Malcarne, V., &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 Soc Issues*, 47, 23-34.
- Farley, M. & Barkan, H. (1998). *Prostituti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N. Y.: The Guilford Press.
- Foa, E. B., Steketee, G., & Rothbaum, B. O. (1989). Behavior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 Therapy*, 20, 155-176.
- Hernandez-Ruiz, E. (2005). Effect of music therapy on the anxiety levels and sleep patterns of abused women in shelters. *J Music Therapy*, 42(2), 140-158.
- Hong, C. H. & Park, Y. S. (2001). The effects of violence of husband on psychopathology of wife. *Res Psycho Sci*, 2, 1-20.
- Hou, W. L., Wang, H. H., & Chung, H. H. (2005).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 Taiwan: their life threatening situations, post-traumatic responses, and psychophysiological symptoms: an interview study. *Int J Nurs Stud*, 42(6), 629-636.
- Jeon, C. E. (2002). *The effects of shame, guilt and social support on PTSD in psychologically abus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emp, A., Green, B. L., Hovanitz, C., & Rawlings E. I. (1995).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J Int Violence*, 10(1), 43-55.
- Kemp, A. & Green, B. L. (1995). Abused wome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J Interpersonal Violence*, 10, 43-55.
- Kemp, A. (2001). *Family abuse and family violence*. Ewha womans University(Ed.), Seoul: Nanam Publishing Company.
- Kim G. I. (2002). *Spausal violence: The fact and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and strategy of family viol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K. (1998). *Prediction model on adaptation of infertil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im J. T. (1978). *The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and socializ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Lee, K. H., Lee, K. O., Kim, S., & Choi, J. S. (2001). Development of preven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batter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4), 560-578.

Lee, P. S., Sohn, J. N., Lee, Y. M., & Kang, H. C. (2005). Prediction Model on Mental Health Status in Middle-aged Women of an Urban Area. *J Korean Acad Nurs*, 35(2), 225-251.

Mertin P. & Mohr, P. B. (2001). A follow - 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xiety, and depression in Australia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Violence Vict*, 16(6), 645-65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0).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Study on incidence of battered women in Korea 2004*.

Pico-Alfonso, M. A. (2005).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ajor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Neurosci Biobehav Rev*, 29(1), 181-193.

Riggs, D. S., Dancu, C. V., Gershuny, B. S., Greenberg, D., & Foa, E. B. (1992). Ang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emale crime victims. *J Traumatic stress*, 5, 613-625.

Romito, P., Molzan Turan, J., & De Marchi, M. (2005). The impact of current and past interpersonal violence on women's mental health. *Soc Sci Med*, 60(8), 1717-1727.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Vict*, 14, 165-171.

Son, J. Y. (1997). A study about property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on

Korean couples - focused on husband's conflict tactics and wife abuse behaviors-. *J Family relations*, 2, 51-87.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Vict*, 16(1), 65-7.

- Abstract -

## Predictors of Anxiety and PTSD in Battered Women

*Sohn, Jung Nam\*Cha, Bo K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dictors of anxiety and PTSD in battered women.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55 women who were stratified samples according to 15,000:1 from a target population in Korea from November 18, 2004 to February 18, 2005. The data was analys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Predictors of anxiety were self esteem, stress, state anger, social support, trait anger, negotiation, and psychological viole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55.8% of anxiety. Predictors of PTSD were self esteem, state anger, trait anger, psychological violence, stress, and anger-in. These variables explained 43.2% of PTSD.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importance of separating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types of violence when taking into account its effects on women's mental health. To promote women's mental health, it is needed to develop self esteem improvement programs, and anger and stress management programs.

Key words : Battered women, Anxiety, Stress disorder-Post traumatic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